

행복한 금요 편지

어느 일본 주류 경제학자와의 외도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장¹⁾

최근 몇 년 새 연하장을 보내도 타무라 상의 답장이 없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다. 70년대 초반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험악했던 시절 무작정 유학을 떠났던 나를 친동생처럼 학업은 물론 일자리까지 돌봐 주셨던 그 분은 나에게 더 없는 대선배였고 따뜻한 스승이었다. 유학시절 나는 그를 통해 빠르게 일본사회와 일본인의 미의식, 축소지향적 사고,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て前), 장인정신, 응석받이 의식구조 등을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일본경제의 이중구조의 역사성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그는 내가 기대했던 이론경제학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논문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1930년대 조선인의 일본이주 실태였다. 단순한 이주통계가 아니고 일본에 도착한 이후 어디로 이동하여 정착했는지 등 이주민의 일본내 지역과 직업 분포까지 상세하게 추계하는 실로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계량 분석을 시도하는 일이었다. 남북한 강제징용자뿐만 아니라 불법도항자도 대상이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차별받던 소수민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일본 주류경제학과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등한시하던 차별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보겠다는 의도였음을 알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차별받는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지금도 철폐와 온존(溫存)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저력은 따뜻한 정책적 손길 덕분이라고 믿는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김도형 한선재단 기획홍보위원장은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겸임교수와 (주)다이아몬드컨설팅 고문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일본은 과연 어떠한가. 오늘날 동경 신주쿠의 신도심 고층빌딩 지역은 세계적인 고소득군의 위용을 자랑한다. 하지만 주변 나카노구의 밀집 하코방은 저소득군. 즉, 전자의 희생물이다. 전후 70년 동안 소외되었던 지방, 중소기업, 농업, 여성, 재일한국인 등 각계각층들이 화려한 고성장의 그늘아래 웅크리고 있는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다. 현재도 일본에는 부락민이 다수 존재한다. 그들에 대한 소위 동화정책을 끈질기게 지속하고 있지만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재일교포 상당수가 그들과 혼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재일교포들은 아직도 외국인 참정권을 갖지 못하는 등 영주권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면서도 차별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 1,2세대는 그 아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시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일본경제학의 주류이면서도 이들과 아픔을 함께 해 온 타무라 상이 있었기에 그들이 희망의 꿈을 잃지 않았던 게 아닌지 생각해 본다. 일본 유학 후 현지에서 정년퇴직 때 까지 우리 교포의 지방참정권 확보를 위해 시민운동을 해온 대선배들도 있다. 이에 동참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일전에 한수산 작가의 군함도를 읽고 그의 모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를 다녀왔다. 이 저서는 27년 세월을 공들인 장편 서사시이다. 일제 치하에서 한 지식인은 신훈도 잠시 임신한 아내를 두고 만형 대신 나가사키의 군함도로 끌려가 지하탄광 하시마에 역류되었다 탈출하지만, 나가사키 원폭 피해까지 입은 채 고향으로 발길을 옮긴다.

지금은 관광유람선이 돌아 나오는 폐허의 섬. 군함도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는 징용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도록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 작가는 군함도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일본은 군함도에서 강제징용 조선인에 대한 ‘가혹한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이지시대 일본의 산업을 떠받친 ‘하시마탄광의 영광’에는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눈물과 분노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기하고 하시마의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은 가톨릭 기도문의 구절처럼 ‘마땅하고 옳은 일 (dignum et iustum est)’ 임에도 왜 일본은 눈을 돌리는가, 일본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력하게도 나는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을 기해 ‘한일관계사 1965-2015년’(총 3권) 기획에 참가했지만 이러한 우리의 역사와 참회의 기록은 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일본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철저하게 가르친다. 일종의 교육칙어인 셈이다. 그들 조상은 주변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들은 원폭희생자라는 이름으로 가해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 가해자로서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텐데 아쉽기만 하다. 한수산 작가는 '어제를 기억하는 자에게 만이 내일은 희망'이라고 말한다.

불의를 향한 불굴의 저항과 무관심에서의 처절한 탈출이 더 나은 지식공동체의 전제 조건이 아닐까. 마침 주거지가 한 동네였던 관계로 단골 선술집에서 밤늦도록 마셔가면서 한·일간 쟁점들을 비판하다가 새벽 귀가 길을 서두르던 타무라 상과의 옛날이 그리기만 하다. 유학 시절 그와의 외도가 이제는 정도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